

# 나주시, 농촌 인력난 해소 계절근로자 본격 입국

총 1100명 입국 예정... MOU 체결 라오스 등 근로자 순차 배치

공공형 계절 근로·인력 중개센터 병행으로 농가 경영 안정 도모

전남 나주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고질적인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농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1100명 규모다.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라오스에서 170여 명의 근로자가 1차로 입국했으며 오는 4월까지 순차적으로 입국해 농업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나주시를 비롯한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인건비 상승과 인력 수급 불균형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이에 나주시는 직접 해외 지자체와

MOU를 체결해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심화되는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뿐만 아니라 내국인 인력을 연결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 3개소와 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2개소를 함께 지원하고 있다"며 "농가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현장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이번에 근로자를 배정받은 농업인 A씨는 "매년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들 덕분에 올



해 농사 걱정을 덜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라오스에서 온 근로자 B씨 또한 "한국의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향후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소규모 농가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공형 계절 근

로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 경제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장치로 자리 잡았다"며 "단순한 인력 공급을 넘어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최고의 영농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 영암군, 걷기 문화 확산 나선다

영암군이 걷기 동호회를 중심으로 군민 건강생활 실천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1일 기찬랜드 일원에서 걷기 동호회원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함께 걷기' 행사를 열고 건강한 걷기 문화 확산에 나섰다.

참가자들은 걷기 코스를 따라 함께 걸으며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건강 습관을 공유하고, 동호회 중심의 참여형 건강활동을 이어갔다.

영암 걷기 동호회는 지난해 발대 이후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 7개 읍·면에서 8개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다.

군은 앞으로 걷기 챌린지 운영과 상시 회원 모집을 통해 참여를 확대하고, 군민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이희숙 영암군보건소장은 "걷기는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이라며 "군민이 일상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광양시는 '2026년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방문 신청을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지난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임업인을 위해 4월 한 달간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병행 운영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4

## 광양시, 임업직불금 방문 신청 접수 운영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방문 신청

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거나, 임업-in 통합포털 누리집(https://pay.foc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임업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지급 대상자는

해당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 6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고 산지 소재지 농촌 지역(연접 시군구 포함)에 거주해야 한다. 지급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이다.

아울러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급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광양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신청 대상자는 기간 내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 곡성군, 청년도전지원사업 본격 추진... 참여자 모집

구직단념 청년에게 최대 350만 원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전남 곡성군이 구직 과정에서 지원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한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이번 사업은 곡성군이 주관하고, 사단법인 미래기술산업진흥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곡성을 '비밀언덕25(읍내 25길 2-1)'를 거점으로 운영되며 ▲1:1 밀착 상담 및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지역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곡성군은 '경쟁이 아닌 지지하는 관계망'을 핵심 가치로 삼아, 단순 취업 교육을 넘어 청년의 정서적 회복과 안정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과정은 참여 기간에 따라 단기(5주 이상), 중기(15주 이상), 장기(25주 이상)로 나누어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 청년에게는 과정별로 수당과 인센티브가 차등 지원된다. 세부 지원액은 ▲단기 과정 이수 시 50만 원 ▲중기 과정 참여수당 150만 원 및 이수·취업 인센티브 포함 최대 220만 원 ▲장기 과정 참여수당 250만 원 및 이수·구직활동·취업 인센티브 포함 최

대 350만 원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취업 및 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구직단념청년(문답표 21점 이상)이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등도 참여할 수 있으며, 곡성군은 지역특화청년 제도를 통해 일부 대상에 한해 만 49세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곡성군 청년도전지원사업 통합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곡성/이경수 기자

## 순천시, '설랑계 V2.0' 참여자 60개소 모집

관내 숙박·체험 사업자 대상... 3월 26일부터 접수

역할을 맡으며, 체험파트너사는 여행자에게 지역의 특색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주제로 참여하게 된다.

신청된 참여자는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을 비롯해 숙소 운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1:1 컨설팅, 체류형 프로그램 기획 교육 등을 지원받는다. 또한, 8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는 '마을여행주간'에 참여해

## 순천시, '설랑계 V2.0' 참여자 60개소 모집

관내 숙박·체험 사업자 대상... 3월 26일부터 접수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특히, 이번 설랑계 V2.0은 숙소와 체험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여행자가 자연스럽게 지역에 머무르고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이에 따라, 설랑계 V2.0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4월 2일(목)

오후 2시, 삼산도서관 3층 시청각실에서 오프라인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 취지·참여 방법·운영 방향 등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마을스테이 설랑계'는 단순한 숙박을 넘어 여행자가 지역에 머물며 쉬고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 모델로, 순천의 자연과 마을, 사람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순천형 관광 브랜드이다. 이번 V2.0은 기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체류형 관광 모델을 한층 강화하는 단계로 추진된다.

순천/정성인 기자

## 장성군이 이달 말까지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출하 전, 농협 수매 약정대금의 일부를 농업인에게 월급으로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약정대금 선지급으로 인한 이지는 군이 농협에 보전해 준다. 대상 작물은 △벼 △배 △감 △딸기

## 장성군 "이달 말까지 '농업인 월급제' 신청하세요"

벼, 배, 감, 딸기, 토마토 등 8개 품목 재배 농가 대상

△토마토 △포도 △사과 △복숭아 8개 품목이다. 지역농협과 농산물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일정 규모 이상 재배면적을 갖춘 농업인이라면 오는 31일까지 지역

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가당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황해연 기자

지금 기간은 작물별로 생육·수확 시기가 다른 점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영농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농업인이라면 꼭 기간 내에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